

주일의말씀

성 요셉의 신뢰



김울석 마태오 신부
신서성당 주임

작년 한 시사주간지에서 '33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 신뢰도 1위는 소방관(92.9%)이고 2위는 간호사(89.9%), 3위는 환경미화원(89.2%)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업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점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하며,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실과 희생이라는 가치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뢰도 조사 결과 중, 성직자는 11위 신부(74.6%), 18위 승려(64.0%), 25위 목사(53.7%)로 나타났으며, 하위권인 21위부터 33위에는 검사, 세무사,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기업인, 기자, 연예인, 증권업종사자 등이고 마지막 33위는 정치인(11.7%)이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신뢰가 깨진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가지는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큰 사랑의 손길 안에서 신뢰로써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자기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쉽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 요셉에게 다가온 선물은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것도 처녀의 몸인 여인에게 아기가 있다니

말입니다. 그가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 요셉은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받아 들이셨듯이, 요셉 또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 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예, 주님!" (마태 9,28)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게 하며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성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굳게 신뢰 했듯이 말입니다. 성 요셉과 마리아의 서로에 대한 이 신뢰는 이 세상에 주님의 성탄을 가능케 하는 큰 은총의 선물로 바꿉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도 이 대림시기를 잘 마무리 하여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합시다.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느님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잘 성찰해보고, 깨진 신뢰가 있다면 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탄하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가정과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제10대 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착좌식

• 일시: 12월 20일(월) 오후2시 • 장소: 남산동 성 김대건 기념관

◇ 착좌식 실행 중계: 평화방송 TV(CH33), 대구평화방송FM(93.1MHz)

◇ 녹화방송: 평화방송 TV, 12월 20일(월) 22:15, 12월 26일(일) 15:00

11. “덕행의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진출

문화홍보실

드망즈 주교님께서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사는 모습을 교우들에게 확실히 가르치려면 수도자들이 교구 안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미비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녀원 건립과 수녀회 진출을 추진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수녀님들이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교님께서 마음에 두신 큰 목적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서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총장 수녀님과 직접 교섭을 벌이셔서 한국 최초로 이 수녀회가 대구에 진출하게 하시고,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녀원을 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일을 대성당, 신학교, 주교관을 지으면서 동시에 진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교님께서 하느님의 섭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교구에 자리를 잡은 후 처음 맡은 소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운영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고, 국가나 지역에서 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

식조차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소임은 고아들을 거두어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김보록 신부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이 일을 드망즈 주교님께서 본격적으로 조직하여 추진하신 것인데, 이 사업 역시 당시로서는 이해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수녀님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이끌었고 교우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구에는 많은 수도회가 진출하여 갖가지 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전교수녀님들이 안 계시면 당장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수도자들의 다양한 활동도 고맙지만, 이분들이 소중하고 반가운 보다 큰 이유는 이분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향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애정이나 동정이 아닌 진짜 사랑, 조건도 이유도 없는 나눔과 섬김의 삶은 하느님께서 참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힘차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느님께 바친 수사님들, 수녀님들,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기도로 세상의 욕하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덮어 주시고, 순결과 가난과 순명의 모범으로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빨리빨리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대림 제4주일

입당성가

95 별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화답송

◎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시니,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파견성가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영성의 향기

:: 하느님 집의 식구 되기

세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만 교리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집안의 식구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은 바로 이 집안의 제일 만행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밀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본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분 흉내를 내겠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초인적인 재능이나 인품을 갖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됩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겉만 보지 마세요



188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 박사에게 초로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그 부부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기념건물을 대학에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박사는 그다지 부자로 보이지 않는 노부부에게 “글쎄요, 조그마한 장학금이나 하나 만드시죠? 건물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해, 엘리엇 박사는 뉴스를 듣고 책상을 치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다른 학교를 찾

아가서 300억 원을 기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하버드와 어깨를 다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혹시 겉모습이나 말 몇 마디로 남을 너무 쉽게 저울질하지 않는지요?

- 윤택은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22(수)은 故서정덕(알렉산텔) 주교님 9주기입니다.

- 행사 / 모임 -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 일시: 12.20(월) 14:00, 교구청별관 대회합실
-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전례꽃꽂이연구회'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 일시: 12.27(월) 20:30, 요안나 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교구 100주년 경축대회 실무위원회
출범미사 및 100주년 홍보사절단 파견식

- 일시: 2011.1.1(토) 14:00, 계산주교좌성당

구유전과 성(聖)미술전

- 일시: 12.21(화)~2011.1.15(토)
- 주최: 가톨릭여성교육관 & Art Christina KIM
- 장소: 갤러리 아테나·파리 동산동 제1점, 동인동 제2점(동산동357 웰디스호텔 옆)
- 문의: 010-8858-5925

- 성소 / 파직 -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 성소파직

- 대상: 중1,2 (내년 기준)
- 일시: 2011.1.11(화)~12(수)
- 대상: 고3, 대학, 일반 (내년 기준)
- 일시: 2011.1.17(월)~20(목) 3박4일
- 장소: 동명·한티, 마감: 12.29(수) 16:00
- 문의: 250-3071/010-6776-3071, 본당 사무실

분도명상의 집 12월 시편 영성파직

- 일시: 12.31(금) 16:00~1.2(일) 13:00
- 주제: 시편명상·성경책, 산책신발
- 지도신부: 정학근(모세)
- 신청: 051)582-4573 / 010-6650-4574

곤벤투알 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파직

- 일시: 2011.1.7(금)~9(일)
- 장소: 서울 한남동 피정의 집
- 문의: 011-749-1670

- 모집 / 교육 -

오르간 전공반 모집

-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나군, 다군)

- 원서접수: 12.18(토)~23(목)
 - 인터넷접수 www.cu.ac.kr
 - 문의: 입학관리팀 850-2580
 - * 2010년 대구, 경북 5개대학중 취업률1위달성
 - *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BEST11선정
- 세계 청년 대회(W.Y.D) 참가 신청**
- 대회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 <http://club.cyworld.com/2011wyd>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 창작사진: 2011.1.3.(월)10:00
- 오키나와: 2011.1.3.(월)13:00
- 하모니카: 2011.1.5.(수)13:00
- 제대&꽃꽂이: 2011.1.7(금)10:30
- 문의 및 신청: 254-6115

환경위원회 명상체조반 회원모집

- 개강일시: 2011.1.4(화) 2개월 과정
- 시간: 화, 금 14:00~16:00
- 수강료: 2개월 6만원
- 문의: 010-5250-3523

9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 기간: 2차 2011.2.26 출발(8주,12주)
- 3차 2011.3.26 출발(8주,12주)
-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 * 스키캠프 모집 중(656-6655)

성필립보 생태마을 생태학교 3기생모집

- 남·여 귀농및농촌생활회망자 우수학생
- 졸업후 직원채용 유가농산물 영성강의
- 홈페이지: 천주교수원교구환경센터
- 문의: 033)333-8066

2011년도 산자연학 초·중등 신입생모집

- 생태영성으로 아이들의 사회적 소통과 이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연체험 중심의 대안학교를 희망합니다.
- 교장: 정홍규 신부
- 문의: 054)338-0530(www.sanschool.org)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 자녀유학시경비지원, 무료어학연수기회
 - 전화: 526-0111(<http://tesol.cu.ac.kr>)
- 제 37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클럽반회
 - 초·중·고: 2011.1.8(토)~30(일) 3주
 - ※정규학교 수업 및 홈스테이 이용
 - 대·일반: 1.3(월)~2.13(일) 6주 또는 장기
 -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 직원 채용 -

도동유치원(울릉도) 교사 채용

-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문의: 660-5163

분도노인마을 생활지도원(요양보호사)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054)976-7575

- 안 내 -

가톨릭근로사회관 영어 미사안내

- 주일 미사: 11:00, 14:00
- 성탄전야 미사: 12.24(금) 20:00
- 성탄 미사: 12.25(토) 11:00
- * 베트남 미사(격주): 18:00

해평 성당 개축 공사에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 계좌: 농협 741066-51-018451
- (재)대구구천교회유지재단 해평성당
- 문의: 이성환(베르나르도)신부 018-533-2679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손성락(요셉), 정재엽, 김병균, 김준우, 최남숙(글라리아)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

가톨릭 호출 택시가 있습니다.

- 053)551-1004 (오오 하느님 천사)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2월 20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2월 21일(화) 오전10시	평와성당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혈압계, 혈당계, 혈체온, 안마기, 뜸, 부항
변 상 범(도나도) 김민 숙(아나타)

경대병원 출입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 독 보 청 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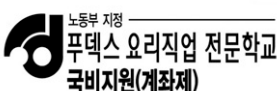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만경당 사이 지하도 입구

20년 역사의 SHINCHUN이 운영하는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 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결 혼 정 보 회 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오틸리아)

범어네거리

코리안

알트만

뉴영남

호텔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강 북

화 성 3차아파트와 화 성 센트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 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려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에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청과, 야채, 선어, 정육

*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장 영 일 (그리스도 신부)

대표이사장 영 일 (그리스도 신부)

이시우 신경

http://적주외과

척추 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

(척추수술 5,000례 이상)

내당역 3번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T.652-0119 / 이시우(요한)